

北韓 圖書館의 發展過程에 金日成이 미친 影響

- 金日成著作集을 중심으로 한 史的 考察 -

The Influences of Kim Il-Sung on Development Process of Libraries in North Korea

송 승 섭 (Seung-Seob So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I. 북한 도서관의 발전과정과 김일성의 영향 |
| 1. 연구의 목적 | 1. 북한 도서관의 발전과정 |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북한 도서관에 미친 김일성의 영향 |
| 3. 선행연구 | III. 요약 및 결론 |

초 록

본 연구는 해방이후의 북한 도서관의 발전과정에 김일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구명하기 위하여 먼저, 김일성 저작집의 도서관관련 내용을 조사·분석하고, 다음 이와 관련된 문헌과 자료를 통해 사실의 진위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북한 교육계에 종사했던 탈북 인사의 증언과 이 글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였다.

주제어 : 북한 도서관, 도서관사, 도서관 사상, 김일성

Abstract

In this study, to look into how much Kim Il-Sung has influenced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libraries in North Korea after the liberation(1945), the contents related to libraries in Kim Il-Sung's Works were researched and analyzed, the authenticity thereof was verified through some related documents and materials, and finally, based on them, a testimony of a personage who had worked in the educational field in North Korea and his appraisal for this study were reflected.

Key Words : North Korea's Library, history of library, philosophy of librarianship,
Kim Il-Sung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사서(libsong@unikorea.go.kr)

· 접수일 : 2001. 2. 8 · 최초심사일 : 2001. 2. 24 · 최종심사일 : 2001. 3. 8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분단 56년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 연구는 현실적으로 절실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고착된 반공 이데올로기와 북한자료 입수의 한계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90년대 이후 국내 정치의 민주화와 북한 자료에 대한 통제 완화로 좀 더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가능해 졌지만 주로 정치 중심의 총론적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현실 이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북한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북한의 역사와 사회, 문화 등 기초분야의 연구를 깊이 있게 수행하지 못하였다.

최근에 와서 역사적 전환기를 인식한 몇몇 진보적인 소장 학자들에 의해 실증적인 연구가 시도되었지만 그마저도 실사구시적 차원의 과학적 연구의 토대를 완전히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아직도 많은 연구들이 각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의 저술이나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여과 없이 인용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그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에서 북한의 원전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를 관련 문헌을 통해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측 관련 인사의 증언과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시도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북한도서관의 현황 파악에 치우친 연구에서 벗어나 좀 더 북한의 도서관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해방이후 오늘의 북한도서관이 있게 된 역사적 배경과 사상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다음, 그 동안 연구되었던 북한의 도서관에 대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을 추가함으로써 앞으로의 북한 도서관에 관한 진전된 연구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최근 다양한 북한관련 연구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역사적 시간적 조건의 틀 속에서 북한을 연구하기 위한 역사적 연구방법(historical method)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발전론적 접근법과 이데올로기를 중시한 문헌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경험적 자료의 축적이 빈약한 상태에서 북한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로 볼 수 있는 김일성저작집을 선택하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1차자료로써 조선왕조실록을 연구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북한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모든 정책적 기초를 담고 있는 김일성저작집에 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일성저작집은 김일성이 출생한 1912년부터 사망 년도인 1994년도까지의 북한 역사와 그의 통치 행태를 담고 있다. 북한은 철저한 1인 지배체제 국가로서 김일성의 교시로써 온 나라가 통치되었고 그가 죽은 뒤에도 유훈 통치라는 세계사에 없는 통치 행태를 보여온 만큼 그의 말이 곧 법이요 실천 강령이었다. 따라서 이 저작집은 사료적 가치가 있는 북한 연구의 핵심자료로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의 인과관계(cause and effect)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으로 볼 수 있다.¹⁾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에 관한 연구는 냉전구도 속에서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된 일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편향적으로 축적된 사회과학적 틀에 이들 1차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대입시켜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도(authenticity)를 깎아 내리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원문(original sources)을 적시하여 원전에 충실한 해석을 하였고, 다음 김일성 개인의 성장배경(personality)과 근대 공산주의 발전사에 관한 2차 자료의 평가를 통해 원문의 적실성 여부와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 교육계에 종사하던 탈북 인사의 증언과 이 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하였다.²⁾

3. 선행 연구

북한의 도서관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梁一雲(1982)의 “北韓의 圖書館”이 1980년대에 발표된 대표적인 연구였다. 양일운은 북한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4-5년 동안 조사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북한도서관의 현황을 1950년대부터 연도별로 자세히 정리하여 놓았다. 그러나 자료 조사가 1973년까지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북한 도서관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현시점의 북한도서관의 현황과는 현격한

-
- 1) 이 저작집은 1979년 4월부터 1997년 2월까지 20여년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계속적으로 출판되어 온 것으로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현재 총 47권에 달하며, 김일성의 단화문 및 연설문 등 1500여편을 수록하고 있다.
 - 2) 원문(original sources)을 적시하여 원전에 충실한 해석을 한 연구는 지난 해 9월 필자가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발표한 “북한의 도서관의 성립과 발전과정에 대한 사적 고찰”에서 1차적으로 시도하여 완료된 것이고, 이후 김일성 개인(personality)의 성장 배경과 근대 공산주의 발전사 등 국내외의 2차 자료의 평가를 통해 원문의 적실성 여부와 새로운 해석을 보충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고등중학교에서 물리교사로서 교육계에서 종사하던 탈북 인사(김희근, 신의주사범대 졸, 1997년 귀순, 33세)의 증언과 필자의 1차 연구자료에 대한 탈북 인사의 평가자료를 종합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여 이 연구를 완성시키고자 하였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2권 제 1호)

차이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朝鮮新報社의 高哲義(1986)가 연구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圖書館事情」이 北韓의 圖書館 現況과 운영 체계를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도서관을 저자가 직접 방문하여 관찰한 사항들로 명료하지만 너무 간단하게 기술하였기 때문에 북한 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도서관 편제나 운영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북한 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필자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관련 자료를 좀 더 수집하여 1994년과 1995년 북한 도서관의 현황과 운영에 대해 좀 더 체계화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같은 시기에 정분희(1994)는 통일 독일의 전후 사례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교류 및 협력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한 바 있으며,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한상완(1994-6)은 도서관 분야의 남북한 상호협력방안과 남북한 도서관문화의 이해와 통일을 대비한 정책과 제도 등 북한도서관과의 교류협력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김미현(1998)도 “도서관 협력 및 전자도서관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활성화방안”을 제시하여 미래 지향적인 관심을 보였지만 그다지 진전된 연구는 아니었다. 이후 최근에 와서 보다 세부적인 주제로서 북한의 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에 대한 연구가 남태우(2000)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북한의 분류표가 최근까지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의의있는 작업이었다.

다음 김일성의 성장배경과 사상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위해 조사한 북한의 원전과 국내외 연구는 저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의도성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고, 연구세대별로 가치관에 따른 해석의 차이가 커서 김일성과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도 세대별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 연구를 개척한 학자로는 한국공산주의 운동사와 초기 북한연구를 대표하는 김창순(1986), ‘가짜 김일성론’을 제기한 이명영(1974, 1975), 이를 부정하고 최근에도 김일성관련 활발한 저술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대숙(1989, 2000) 등을 꼽는다. 다음 세대로, 북한정치론에 일가견을 갖고있는 이상우(1988), 주체사상연구의 김갑철(1988) 등이 있고, 1980년대 후반부터 과학적 북한 연구를 주창한 이종석(2000) 등이 최근에 와서 주목받고 있다. 이 밖에도 본 연구와 깊이 관련된 김일성전기 비평을 주로 다룬 허동찬(1990,1991), 이기봉(1989) 등이 있으며, 일본인 학자 와다 하루끼(1992)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최근까지도 북한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 혹은 진보적 또는 보수적으로 분류되는 관점에 따라 북한 역사를 평가하는 현실 인식이 대단히 다르다는 것이 선행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이러한 이념 논쟁의 실례로 최근 우종창(1998)이 제기한 바 있고, 이를 통해 최장집(1999)이나 이장희(2000)의 진보성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자료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시각의 연구를 수용하되 연구의 일관된 해석과 방향성 정립을 위해 한국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인물로서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혀둔다.

II. 북한 도서관의 발전과정과 김일성의 영향

1. 북한 도서관의 발전과정

내용분석을 위해 전체 47권의 김일성저작집을 대상으로 '도서관' 관련 기사를 조사한 결과, 직접적으로 도서관과 관련하여 담화로서 발표된 것이 6건이 있었고, 간접적이지만 도서관 문제를 언급하거나 관련지은 담화 및 연설문은 모두 70건으로 전체 76건의 자료에서 '도서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적인 측면에서 도서관문제가 적지 않게 다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자료들은 내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김일성정권 이후의 북한 도서관 성립의 배경과 발전과정, 그리고 김일성의 도서관에 대한 생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그 내용들을 전개해 감으로써 그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은 직접적으로 도서관사업에 대해 발표한 김일성의 담화 내용을 연도순으로 분석한 것이다.

김일성은 한국전쟁이후 전후 복구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부문별 지침을 담화를 통해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문화선전기관들의 복구건설방향을 제시한 것 가운데 도서관과 박물관 사업 부문도 들어 있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에 국립도서관을 복구, 확장할 것이며 도소재지, 주요도시들에 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인민경제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적 유물과 전쟁시기와 평화적 건설시기의 조선인민의 영웅적 투쟁업적들을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혁명박물관과 력사박물관들을 건설할 것이며 력사적 유물들을 보존하며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유적들을 복구정비하는 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까.

(김일성 저작집 8. 38-9 (1953.8 - 1954. 6),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이 내용을 통해 먼저, 도서관사업이 국가경제계획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또한 1948년 10월 김일성에 의해 창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북한의 국립도서관이 전쟁 중에 일부 파괴되었거나 커다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으로 북한의 력사사전(1971)에 의하면 1953년 9월부터 중앙도서관 복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파괴된 청사를 보수정비하고 따로 보조 청사를 신설하였다는 내용과 함

게 1963년 10월에 현대적 설비를 완전히 갖춘 웅대한 새 청사를 마련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국립중앙도서관은 전후에 다시 복구되어 1982년 인민대학습당이 건설될 때까지 북한의 국가도서관으로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 나라의 역사적 유물과 전쟁시기와 평화적 건설시기의 조선인민의 영웅적 투쟁업적들을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라고 밝힌 것처럼 북한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소위 전쟁시기의 투쟁업적 홍보를 위하여 ‘도서관 사업’ 강화를 ‘박물관사업’ 강화와 함께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1954년 이후, 역시 전후 복구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시기로 대학의 교육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내려보낸 담화에서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학도서관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을 잘 꾸리고 널리 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학도서관에는 전쟁시기에 소개하였던 책들을 빨리 정리하여 비치하며 적들의 폭격에 의하여 못쓰게 된 책들도 잘 손질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대학도서관에는 당문헌을 비롯하여 사회과학서적들과 자연과학서적들이 다 있어야 하며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출판된 책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해방전에 출판된 책들과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서적들도 있어야 합니다. 대학도서관에서는 될수록 책을 많이 수집하여 비치함으로써 교원들과 학생들이 참고서적이 부족하여 교수사업과 학과학습에서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열람실도 잘 꾸려야 합니다. 열람대에 탁상등을 놓아주며 바닥에는 주단을 깔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원들과 학생들이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대학에 현대적인 과학도서관을 하나 지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9. 369 (1954.7 - 1955.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국립중앙도서관에 이은 대학도서관에 대한 관심 표명으로 대학도서관을 규모있게 꾸미고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대에 탁상을 놓고 바닥에 주단을 깔 것을 지시하는 등 도서관 운영에 대한 대단히 세부적인 지침을 주고 있다. 또한 장서구성에 있어서도 당문헌, 사회과학서적, 자연과학서적 이외에도 해방전 출판된 책들과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 서적의 입수를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서적에 대한 강조는 이후의 문헌에서도 계속된다. 이것은 김일성이 소위 마르크시즘을 바탕으로 한 유일사상을 기치로 사상적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서적에 대한 관심 표명이 유난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도서관의 명칭도 ‘과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일성종합대학교 도서관도 그 실제 명칭은 ‘김일성종합대학과학도서관’으로 칭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일성고등물리학교,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등 그의 이름을 앞세워 각종 과학기술학교를 세웠다(백과사전출판사,

1986). 이와같은 이유로 인하여 선행 연구에서도 일부 밝혀진 바 있는데 북한에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류의 사상서와 김일성로작 이외에는 사상서로 불리어질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밖에도 해방전에 출판된 책들과 민족고전들을 국가적 사업으로 정리하라는 언급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흩어지고 훼손된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해 일제의 야만성을 폭로하고 자신의 항일투쟁업적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973년에는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자”는 제하의 담화에서 학교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내린바 있다.

청소년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학교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도서관을 꾸리고 그것을 잘 운영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청소년들이 몇 백만명이 나 있는데 그들에게 매 종류의 책을 한 부씩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급 학교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도서관을 꾸리고 청소년들이 책을 빌려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에서는 학교도서관들에 어떤 책들을 비치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보고 각급 학교도서관들에 비치할 도서목록을 만들어내려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등중학교도서관에는 대학교재를 몇 부씩 비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3학년때쯤부터는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것만큼 학교도서관에 대학교재를 비치하면 그것을 볼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풍부한 지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과학토론회를 널리 조직하여야 합니다. 사료조직들은 청소년들속에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론증하는 과학토론회를 널리 조직할 뿐아니라 과외시간을 리용하여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토론회도 자주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28. 213-4 (1973.1 - 1973.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 이어 순서적으로 학교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당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가 학생들이 읽어야 할 권장도서목록을 만드는 등 학교도서관을 권장 또는 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에서 “각급 학교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도서관을 꾸리고 청소년들이 책을 빌려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북한은 청소년들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많이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교육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공장, 기업소 등 각 종 도서관을 이용해왔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교육적 활동의 많은 부분을 도서관이 담당하여 왔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과학기술분야에 대해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2권 제 1호)

책을 많이 읽고 연구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학자와 기술자의 양성이 북한의 중요한 교육 목표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³⁾

위의 담화가 나온지 2년뒤인 1975년에 들어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창전인민학교의 교원들에게 한 담화에서는 직접적으로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시, 군, 구역 도서관과 학교도서관들에 자연과학서적, 문화서적으로 비롯한 여러 가지 서적들을 많이 갖추어놓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잘 운영하려면 또한 도서관일꾼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학교도서관일꾼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일꾼들은 학생들에게 책을 빌려주 다음에는 그들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문을 꼭 써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상문은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반드시 써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 속에서 책을 가져갔다가 읽지 않고 바치는 현상을 없앨 수 있으며 도서관을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30. 462 (1975.1 - 1975.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북한의 도서관이 시립, 군립도서관과 우리의 동단위에 해당하는 구역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역시 자연과학서적의 비중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서관일꾼(사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사서의 독서지도를 강조하였다. 이 문헌 외에도 북한에서는 독서한 후에 양에 관계없이 반드시 감상문 제출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김일성에 의해 지시된 것으로 도서관에서의 중요한 교육 방법으로 자리잡았을 것으로 보인다.⁴⁾

북한은 우리보다 앞서 1970년대에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을 앞세워 유치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중·고등학교까지를 일컫는 소위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해 왔다.⁵⁾ 따라서 북한은 그만큼 학교교육과 사상교육의 수단으로서 학교도서관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여러 문헌에서 사회주의 교육방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체계를 강

3) 북한 고등중학교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했던 탈북 인사와 현재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탈북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당국이 기초과학, 기술분야의 교육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며, 자신도 중학교 때 컴퓨터 언어(basic등)를 습득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평균적인 교육수준 보다 우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4) 탈북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에서 도서관 열람증 발급조건은 3번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읽은 책을 기일 내에 정확히 반납하는가, 또한 읽은 책에 대한 감상문을 어김없이 제출하는가에 따른 신용성에 기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도서관 이용시 읽은 책에 대한 감상문 제출은 의무사항이었다.

5) 북한은 1956년에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1958년에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 1972년부터 1년 동안의 학교 전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김일성 저작집 32권, pp. 401-403).

조하였는데 여기에서는 1977년에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라는 담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내용 중에도 “도서관 확충”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다.

학생도서관을 많이 꾸리고 그것을 바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생도서관을 많이 꾸리고 그것을 운영하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책을 읽기 좋아하는 버릇을 붙일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교양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람들은 도서관을 잘 운영할 줄 모릅니다. 도서관을 잘 운영하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평양시에는 중앙도서관도 있고 구역도서관도 있고 학교도서관도 있는 것만큼 그것을 잘 리용하면 됩니다. 지방들에는 도서관을 굉장하게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아무 집이나 방을 몇 칸 내어 책을 비치해놓고 볼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도서관을 잘 운영하자면 국가에서 도서관들에 책을 넉넉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도서관을 아무리 잘 지어놓아도 읽을만한 책이 없으면 학생들이 도서관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필요한 책을 많이 출판하여 도서관들에 주어야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잘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보고 바칠 때에 그 책의 기본내용을 글로 몇 장씩 써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서관에서 빌려간 책을 보지 않고 바치는 현상을 없앨 수 있으며 학생들이 글쓰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도서관과 학생소년회관을 지어야 할 데는 지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자재를 들여 극수집을 짓는 것보다 학생도서관이나 학생소년회관 같은 것을 짓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학생도서관이나 학생소년회관을 짓는 것은 학교건설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과학영화도 많이 만들어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과학강연도 많이 하여야 합니다. 과학영화를 많이 만들어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과학지식을 많이 얻을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영화관에 모일 때에는 어느 교원에게 미리 잘 준비시켰다가 영화를 돌리기전에 한 30분동안 과학강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32. 427-8 (1977.1 - 1977.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생도서관을 통해 어려서부터 독서습관을 기르게 하며 그를 통해 교양화 시킨다.
- 2) 도서관을 많이 짓되 지방에는 소규모(방 몇 칸 정도의 공간)로 짓는다.
- 3) 도서관의 장서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필요한 책들을 많이 출판할 수

있도록 한다.

- 4) 독서 후에 기본 내용(감상문)을 제출 받아 글쓰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한다.
- 5) 도서관 건설은 국수집을 짓는 것보다 중요하며 학교건설 못지 않게 중요하다.
- 6) 학생들이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다른 어떤 담화보다도 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김일성의 사상 또는 철학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김일성은 어려서부터 독서습관을 기르는 장소로 도서관을 생각하고 있었고, 책을 읽은 뒤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요약하거나 감상문을 쓸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중요한 교육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 또한 도서관은 건물자체 보다도 그 내용 즉, 장서구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역시 그 장서의 핵심에는 과학서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교양 및 학습화라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도서관 건설이 국수집이나 학교 건설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또 한가지 이 글을 통해서 북한도 도시와 지방간의 지역적인 문화시설의 편차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평양과 비교할 때, 평양에는 중앙도서관과 지역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면서도 지방에는 아무 집이나 방 몇 칸을 내어 책을 비치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보면 그렇다. 이 내용을 통해서도 북한의 지방에 있는 많은 도서관 또는 도서관실은 우리의 마을문고나 가정 문고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⁷⁾

1977년에 이어서 1978년에도 “사회주의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는 제하의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도 도서관 증설을 역설한 바 있다.

도서관과 도서관실을 잘 꾸려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학습하는 조건에서 도서관을 잘 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출판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 다 차례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과 인민들이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 소재지에는 도서관을 꾸리고 학교들에는 도서관실을 꾸려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평양에는 인민대학습당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인민대학습당에는 여러 가지

6) 탈북인사에 따르면 북한의 고등중학교나 대학에서는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에 하나로 행군하면서 독서하는 “독서행군”과 “1만 페이지 책읽기 운동” 등 독서행사가 전국적인 연례행사로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7) 이에 대해 탈북인사는 군(郡) 이상에는 성인도서관과 학생도서관이 각각 한 개씩 있으며, 김정숙군과 같은 이름 있는 군은 2개 이상도 있다고 하는데, 그 규모는 대체적으로 100-300여명이 한번에 열람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작은 지방의 경우에는 공부나 일을 하다가 참고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세워진 흔히 ‘책을 읽는 방의 의미’가 있는 도서관실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책을 다 갖추어놓고 지방도서관에 없는 책들은 사본하여 보내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일성 저작집 33. 450 (1978.1 - 1978.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이 내용에서도 전 인민의 학습과 교육을 위해서 군 소재지를 비롯하여 학교에 도서관을 많이 설립해야 한다는 점이 누차 강조되고 있다. 또한 처음으로 북한이 세계적인 도서관으로 자랑하고 있는 인민대학습당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지방도서관에 없는 책들을 이 도서관을 통해 복사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보아 전국적 규모의 도서관 사업을 관장하려는 목적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김일성은 국립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시, 군, 구역도서관 및 기업도서관 등 북한의 모든 도서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였으며, 그 운영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내려보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기술된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 도서관의 성립과 발전과정은 전후 복구사업 초기부터 김일성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도에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면 북한이, 김일성이 왜 이처럼 도서관 사업을 중요시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선행 연구를 통하여 이미 답한 바가 있다.

조선말대사전(1992)에서 ‘도서관’을 찾으면 “책을 비롯한 출판물들을 정보보관하고 사람들이 널리 읽을 수 있도록 빌려주는 문화기관, 우리 나라 도서관은 도서선전과 책 읽기지도를 통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을 촉진하며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임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나라의 귀중한 문헌재부를 보관관리하는 중요한 문화기관이다” 라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도서관이 사회적 문화교양기관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그 근본 목적과 기능은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혁명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⁸⁾ 이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평가한 북한도서관의 성립과 양적 발전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관련 문헌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북한도서관이 단순히 유일사상의 학습장으로만 기능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일면이 있다. 또한 김일성도 자신의 우상화와 유일사상 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도구화하였다고 만은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배경과 관련 사실이 있다. 본 연구는 북한에 대한 과거의 도식적 사고를 지양하는 차원에서 북한도서관의 성립과 발전에 미친 김일성의 사상적 영향을 그의 성장배경과 다양한 활동들을

8) 북한의 도서관 확대 정책에 대해 탈북 인사는 1950년대 초 김일성에 의해 새로운 북한사회가 형성되는 시기는 소위 지주, 자본가, 친일파 등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이 수립된 시기였다고 설명하면서, 일제강점시기에 못 먹고 못 살던 절대 다수의 노동자 농민의 사회가 이루어졌는데 이들 대다수가 무지몽매한 상태였기 때문에 김일성이 새로운 사회와 북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며, 그 수단과 방법으로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통하여 찾아보기로 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김일성의 담화나 관련 문건을 통하여 북한 도서관에 대한 정책적 요소와 현황을 발견하였고, 다음 장에서는 김일성 개인을 중심으로 그가 미친 사상적 영향을 바탕으로 북한도서관의 역사성을 추적하고자 한다.

2. 북한 도서관에 미친 김일성의 영향

김일성저작집에는 통치의 수단으로서 북한의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문헌도 많지만 김일성 개인의 도서관 이용과 활동, 도서관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도 생각 외로 많이 있다.

김일성이 공식적으로 도서관문제를 처음 언급한 것은 1946년이었다.⁹⁾ 그 해 3월 23일 그는 방송연설을 통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이름으로 앞으로 수립될 임시정부의 정강 20개조를 발표하였다. 이 정강 20개 가운데 제17조의 내용이 도서관과 관계된 것이었다.

(17) 민족문화, 과학 및 예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극장, 도서관, 라디오방송국 및 영화관의 수효를 확대할 것.

(김일성 저작집 2. 127 (1946.1 - 1946.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일성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남과 북이 외세에 의해 충돌되고 있었던 1946년에 소위 임시정부를 구상하는 북조선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정강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20개 조항 중에 하나로 앞으로 새 나라가 건설되면 극장 등과 함께 도서관의 수효를 늘릴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약속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내용은 1947년에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담화에서 발표된 것으로 교육·문화부문의 현황으로 제시된 것이다.¹⁰⁾

9) 통일부(1999)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은 1945년 10월 평양에 귀환하여 조선 공산당 분국비서를, 12월에는 북조선 조직위 책임비서를, 1946년 7월에는 북조선노동당 부위원장(1차 당대회)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숙(2000)의 저서 등 각종 기록에 의하면 김일성은 만주와 연해주에서 한결같이 항일투쟁에 헌신했으나,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동북항일연군과 소련군에서 활동했던 탓으로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점령군으로서 입성한 소련은 소련군 88여단에서 4년간 훈련받은 김일성을 지도자로 내세워 그들의 점령정책을 이행시키려고 했다. 이것은 당시 소련이 파악하고 있는 한국인 공산주의자가 적었으며, 소련의 점령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만한 인물을 따로 찾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일성이 정식으로 북조선 인민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1947년 2월 17일 제1차 북한인민회의 개최 이후이다.

10) 이 내용은 통일원(1996)에서 간행한 경제통계집에 수록된 것인데 그 원전은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에서 김일성이 보고한 “1947년 인민경제 발전계획에 관하여(1947.2.19)”와 “북조선 인민회의 제4차회의의 1947년 계획 실행총화와 1948년 인민경제 발전계획에 대하여(1948.2.6)”에 수록된 내용이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과 글마저 없애버리려 하였습니다. 노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은 중학교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초등교육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근로자들 속에는 수많은 문맹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중문화교양사업이 또한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1945년에는 한개의 구락부도 없었으며 도서관은 일곱개밖에 없던 것이 1946년말 현재로 91개의 구락부와 35개의 도서관과 717개의 도서관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3. 104-5 (1947.1 - 1947.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고,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왜곡·과대 포장되었다는 학설이 오랜 세월동안 주류로서 인식되어 왔다.¹¹⁾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나 극우적인 안보논리에서 벗어난 양심적인 학자들에 의해 그의 항일투쟁 경력에 대한 증거가 여러 번 드러났고, 지난해에는 국가기관으로서 처음으로 통일부가 자체 간행물을 통하여 이를 인정하였다(통일부, 1999). 따라서 위의 내용으로 보아서 김일성은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겪으면서 노동자, 농민들이 전혀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고, 이들을 교육시키는 수단으로 학교와 도서관을 염두에 두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 기록에 보면 1945년에는 7개의 도서관 밖에 없었다. 그러나 1946년 1년만에 35개의 도서관과 717개의 도서관실이 생겼다는 것이다. 기록대로 라면 그가 도서관 수효 확장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도서관과 도서관실이 새로 건설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일부는 복구되었을 것이고, 도서관이라는 것은 방이나 교실을 터서 만든 수준일 것이다. 도서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언급은 앞서 지방의 도서관설치에 대한 내용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바 있다. 김일성이 정강정책 발표를 통해 북한의 최고 실력자로서 도서관 확충사업을 발표하기 이전에 그가 이미 도서관에 대해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주목할 만한 문헌들이 있다. 이제 그의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을 엿볼 수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기로 한다.¹²⁾

11) 이종석(2000), 서대숙(2000), 와다하루끼(1992) 등 각종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은 1936년 중국인 공산당원 양징위(Yang Jingyu)에 의해 조직된 동북항일연군의 제2군 제6사의 師長으로 만주를 중심으로 한 항일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통일부(1999) 기록에도 동만지구 공산주의 청년동맹위 서기(1929), 중국공산당 조선인지대 지대장(1932), 조선광복회조직(1936.5), 함남 보원보 습격, 함남 중평리습격(1937.6), 동북항일 연군교도여단 제1교도의 영장으로 활동, 소련 극동군사령부 정찰국 소속 88특수여단(하바로브스크)에서 대위로 활동했던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에 대해 국내의 주요 신문에서도 이미 사실 확인을 한 바 있다.

12) 김일성은 12살이 되던 1923년 3월 중국의 팔도구 소학교를 졸업하고 “조국을 알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단신으로 걸어서 평양 만경대까지 천리길을 걸어 고향의 창덕학교에 입학했다고 한다. 북한

먼저 김일성저작집에서 김일성 스스로가 소개한 자신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중 아버지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³⁾

우리 아버지는 새것에 민감하고 향학열이 높았다.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면서도 늘
정규학교에 가고 싶어하였다. 중략

아버지가 승실중학교에 입학한 것은 나라가 망한 이듬해(1911년) 봄이었다. 아버지 자
신도 학비를 벌려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학교당국이 운영하는 실습장에서 해가 질 녘
까지 고된 로동을 하였다. 그런 후에 학교도서관에서 몇시간씩 책을 읽다가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와 한두시간 쪽잡에 들었다가는 다시 학교로 가곤 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어려서부터 책을 일게 하고는 그 책에서 중심이 무엇이며 배
운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꼭 쓰는 습관을 키워주었다. 아버지가 키워준 이 습관
이 크게 은을 내었다. 중심을 잡아 주면서 책을 정독하게 되면 아무리 복잡하게 뒤엉
킨 내용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짧은 시간안에 많은 책들을 볼 수 있다.

(김일성 저작집 45. 6-7 (1912.4 - 1930. 5),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일성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의 성장 배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가
부장적 사회에서 집안의 권위를 대변하던 아버지의 모습은 자식에게 그대로 각인되어 내려
왔던 것은 우리 사회 전통의 일부이었다. 김일성은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열로 가득찬 아
버지가 정규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스스로 학비를 벌면서 밤
늦게까지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¹⁴⁾

이 역사가 약간의 과장이 포함되었더라도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김일
성이 도서관에 대한 의미와 도서관을 통해 얻게 되는 힘을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체득

에서는 이 도보코스를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코스로 지정하여 1974년부터 청소년·학생 행군대를 조
직하여 답사행군을 실시하고 있다(북한대사전,1999, 조선대백과사전12, 1999).

13) 김일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한 이기봉(1989), 허동찬(1991), 백상창(1980) 등의 김일성평전에
따르면,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승실중학교 학생이 아니라 그 학교 교사였고, 훗날 민족주의 운동을
하기보다는 한약방을 차려놓고 아편장사를 하였다는 등 여러 가지 일설을 소개하고 있으나 현재의 보편
적 시각은 김형직이 평양 승실학교를 중퇴한 것은 사실(대한매일신보사,2000)이며, 1913년 순화학교와
1916년 명신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것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1917년 조선국민회 조직으로 투옥되었다는
것과 1918년 [순천의원]을 차려놓고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은 기록간에 차이가 있어 완전히 입증되지
는 못하였다.

14) 김형직의 가계는 대대로 이어온 지방 농민이었으나 김형직은 기독교계 학교를 다녔고, 그의 부인 강반석
은 교회 장로이며 창덕학교 교감이었던 강동욱의 딸이다. 따라서 김일성의 부모는 모두 기독교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평양부를 중심으로한 대동군은 40여 개의 교회가 설립되어 있을 정도로 기독
교의 영향이 강하였다고 한다(와다 하루끼, 26-29). 또한 김일성도 자신의 회고록(세기와 더불어)에서
부모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의 어려운 곤경 속에서도 조선기독교 교회사의
태두였던 손정도 목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술회하고 있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를 통해 학교와 도서관, 독서의 의미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다. 또한 그의 독서 습관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 독서를 하고 나면 반드시 감상문이나 요지를 기록하도록 훈련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감상문의 효과에 대해서도 “중심을 잡아 쥐면서 책을 정독하게 되면 아무리 복잡하게 뒤엉킨 내용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책들을 볼 수 있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문헌에서 밝혀진 것처럼 그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도서관운영방법에 대한 그러한 지침을 내리게 한 동인을 전후 역사간의 인과관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곧 그의 아버지로부터의 교육이 곧 그의 인민에 대한 교육방식으로 그대로 전수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국의 길림에서 보낸 청년 시절의 그를 접해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생각을 알아보자

길림에서의 나의 활동은 맑스-레닌주의를 더 깊이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우마항거리의 도서관에서는 한달에 열람료를 10전씩 받았는데 나는 그 열람권을 달마다 떼가지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도서관에 들려 몇 시간씩 책과 신문을 읽곤하였다. 그러면 적은 돈을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출판물들을 볼 수 있었다.

책방에 좋은 책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도 돈이 없어 못살 때에는 부자집 학생들을 부추겨 사게하고 그들이 사온 다음 그 책들을 빌려다 보곤하였다. 돈많은 집 자식들 가운데는 읽지는 않으면서도 멋을 부리기 위하여 책을 사다가 장식용으로 꽂아두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 시기 육문중학교에서는 학교관리를 민주주의적으로 하였다. 도서주임도 반년에 한번씩 학생총학에서 선출하였다. 선출된 도서주임은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을 세우고 책을 사들일 권한을 가지었다.

나는 육문중학교시절에 두번이나 도서주임으로 선거되었다. 그 기회를 리용하여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많이 사들이었다. 책이 많고 보니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였다. 나는 독서시간을 1분1초라도 더 얻어내기 위하여 애를 쓰면서 차려진 시간안에 하나라도 더 많은 책을 읽고 그 본질을 깊이 알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 중략 . .

나는 이 시기 《공산당선언》, 《자본론》, 《국가와 혁명》, 《임금로동과 자본》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고전들과 그를 해설한 도서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다.

(김일성 저작집 45. 206-9 (1912.4 - 1930. 5),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이 내용을 통해 김일성 스스로도 중학교 시절에 도서관을 철저하게 이용하였고, 도서관주임을 2번이나 할 정도로 독서에 대한 열의와 도서관 운영에 대해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당시에 도서주임은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을 세우고 장서를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므로 오늘날의 도서관장의 역할에 버금가는 것이었으니 도서관 운영에 대한 많은 것을 이 시절 터득했다고 볼 수 있다.¹⁵⁾ 또한 그 역시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매월 도서관 열람료를 마련해서 매일 몇 시간씩 도서관을 이용해야 했고, 도서관에서 구입하지 못한 새로 나온 책은 부자집 동료를 부추겨 책을 사게해서 빌려 읽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을 볼 때, 그가 도서관의 수호 확대에 상당한 집착을 갖고 있었고, 또 도서관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로서 장서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은 이 시기에 “《공산당선언》, 《자본론》, 《국가와 혁명》, 《임금로동과 자본》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고전들과 그를 해설한 도서들을 손에 잡히는대로 읽었다”¹⁶⁾는 그의 기록처럼 많은 독서를 통해 당시로서는 혁명에 필요한 선진 사상을 접하게 된 것이다. 그가 선진사상과 새로운 과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이후 많은 문헌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는 이 당시 길림에서 비밀독서회를 조직하고 활동에 들어갔는데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화전에서 얻은 경험을 참작하여 뜻이 통하는 몇몇 동무들로 먼저 육문중학교 안에 비밀독서조를 조직하였다. 비밀독서조는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이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을 사명과 목적으로 하였다. 이 조직은 매우 빠르게 자리서 얼마 후에는 문광중학교와 제1중학교, 제5중학교, 너자중학교, 사범학교를 비롯한 길림시내의 여러 학교들에 확대되었다.

독서조성원들의 대렬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독립운동자들이 경영하는 정미소의 방한칸을 얻어가지고 류길학우회 성원들을 내세워 자체로 도서실을 운영하였다. 지금은 어디에 가나 도서관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인민대학습당과 같은 큰 도서관도 궁전같이 세우지만 사실 그때 맨주먹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 도서실을 꾸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책도 사오고 서가도 매고 책결상도 갖추어놓아야 하겠는데 우리에게는 돈이 없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철도공사장에 가서 침목을 메나르거나 강가에서 자갈을 저

15) 기록상으로 볼 때, 김일성은 창덕학교를 졸업하고 1926년 화순현에 있는 화성의숙에 들어 갔으나 몇 개월 있지 못하고, 1927년부터 1929년 9월까지 길림의 육문중학교에서 수학하다가 공산청년동맹가입 등 문제를 일으켜 투옥됨으로써 중퇴한 것으로 되어있다. 육문중학교 시절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기록상 도서주임으로 활동한 공식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김일성의 회고록에는 이 육문중학교의 학교도서관에 김일성 주석을 기념한다는 기념문구가 작은 현판으로 부착된 전경의 사진(세기와 더불어1,1992)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김일성이 생전에 이 시절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이에 대해 서대숙(2000)은 공산주의 학습, 소위 “의식화”작업을 위해 비밀독서회 조직을 이용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 당시에 중학 2년을 겨우 마친 소년이 이 모든 책들을 다 보고 학습했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평하고, 단지 사상적으로 조숙해서 어린 나이에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가들을 접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124-125).

르는것 같은나 샅일을 하였다. 녀학생들도 정미소에 가서 쌀의 뉘를 골랐다. 이렇게 한푼두푼 힘들게 번 돈으로 책을 사들였다.

혁명적인 책들을 따로 보관할수 있는 비밀서가까지 갖추어 도서실을 꾸려놓은 다음 간단하면서도 구수하게 책소개를 써서 시내의 여러 곳에 붙여놓았다. 그러자 학생들은 앞을 다투어 우리의 도서실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그때 학생들을 끌기 위하여 도서실에 연애소설도 가져다놓았다. 청년들은 연애소설들을 읽는 것에 도서실출입을 많이 하였다. 그런 식으로 책에 맛을 붙이게 해놓고는 사회과학책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사회과학책들을 보면서 점차 각성되면 그때에는 비밀서고에서 맑스-레닌주의고전들과 혁명적인 소설책들을 꺼내주곤 하였다.

(김일성 저작집 45. 213-4 (1912.4 - 1930. 5),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지금으로 보아선 도서실을 공산주의 혁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지만 어쨌든 젊은 시절 그는 비밀독서회를 이끌어 나갔고, 그 학습장소로서 도서실을 만들기 위해 막노동도 서슴치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시내 곳곳에 도서 안내서를 붙였다는 것과 연애소설도 구비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다양한 독서를 하였으며, 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의 이런 점이 훗날 대중 동원력 발휘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길림에서의 이러한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여러 군데서 계속 나타난다.

길림의 변화한 거리에는 《신문서사》라는 큰 책방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한주일에 도 몇차례씩 그 책방에 들리곤하였다. . . . 중략 내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학생도서관에 놓을 책을 한아름씩 사갈 때면 그는 자기 책이나 고르는 것처럼 흐뭇해 하면서 어느 책은 어떻고 어느 책은 꼭 볼 필요가 있으니 사가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조언을 주곤하였다. . . . 중략 1928년 여름에 길림 육문중학교는 동맹휴학하였다. 그때까지 육문중학교에서는 식당과 재정 관리, 도서관운영에 이르기까지 학교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보적인 교원들과 학생들의 민주주의적 의사에 따라 순조롭게 풀어나가고 있었다.

(김일성 저작집 45. 216 (1912.4 - 1930. 5),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이러한 내용을 통해 이 당시의 도서관운영에 있어 오늘날 보다 오히려 학생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자치적으로 도서관 주임을 학생 중에서 선출하였고, 학생들에게 도서구입에 관한 권한과 관리를 거의 맡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김일성이 어려서부터 갖게 된 나름대로의 독서 문화가 있었고 도서관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한 여러 번의 계기를 겪은 시절 갖게되었다는 점에 공감할 수 있다. 필자는 이렇게 젊은 시절 갖게된 도서관에 대한 그의 생각과 방향이 훗날 국가를 경영하는 철학의 하나로 인민들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좀 더 구체화되었다고 생각된다.¹⁷⁾ 다음은 이러한 필자의 생각을 입증하는 문건으로서 전후의 도서관과 관련한 그의 생각들을 추적한 것이다.

1963년 인민군대에 대한 “계급적 정치교양사업 강화”를 역설하는 그의 생각의 일단에도 바로 앞서 살펴 본 젊은 날의 경험과 생각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지난날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의 형편은 참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학교라는 것이 얼마 없었고 대학은 고사하고 중학교에라도 가지면 매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돈이 없어서 책을 사지 못하였을 뿐더러 맑스주의서적 같은 것을 구하기조차 매우 힘들었습니다. 결국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공부했는데 제 날자에 돌려주지 않으면 벌금을 물기때문에 책이 제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밤잠을 자지 않고 읽었습니다. 혹 맑스주의서적을 구하기나 하면 남의 눈을 피해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방에 가면 맑스-레닌주의서적이 얼마든지 있고 책값도 매우 저렴합니다. 그러나 오늘 자라나는 동무들은 좋은 책을 잔뜩 쌓아놓고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부도 될수 있는대로 노력을 안하고 헐하게 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17. 73-4 (1963.1 - 1963.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여기에서 보여 준 내용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책도 많고 도서관도 많아서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질책이다. 이러한 생각은 이른바 기성세대가 갖는 보편적 가치관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 여러 글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구체성을 갖게된다.

17) 이러한 필자의 견해에 반하는 평가도 많이 있다. 주된 이유로 겨우 부친대에 이르러서 기초적인 교육을 받은 집안이고, 김일성의 최종학력도 중학교 2학년 정도였으며, 그는 소학교 이후 20여년 동안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투쟁한 행동파지 사색파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김일성의 아버지는 14세에, 어머니는 그가 20세 때 각각 사망했음으로 집안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가 제대로 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당시 북한 사회사를 들여다보면 김일성이 피착취계급의 당사자로서 나라를 잃은 무지몽매한 백성으로서 못 배운 것에 대한 한을 갖고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민족주의적 교육과 외가로부터 받은 기독교적 구원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며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변화, 변질되었지만 일반 민중의 계몽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구체화 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그가 공식적인 학교교육은 부족하였지만 많은 공산주의자들(상월(尙鉞), 초도남 등 ML사상 전문가)로부터 소위 좌파 선진사상을 습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행동에 옮겼던 많은 빨치산들이 훗날 김일성이 북한을 반세기 동안 통치할 수 있게 했던 핵심세력이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기술혁명을 수행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에 관한 담화에서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조건 보장에 관해 제시한 내용이다.

문제는 우리의 일부 경제일꾼들이 눈앞의 생산에만 주의를 돌리고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태도로 일하고있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에게 응당 지어줄수 있는 조건도 지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연구시설들도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벌써 정전직후에 평양에 과학도서관을 지을 것을 결정하고 몇만권의 책을 사올 교섭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반기로 한 책의 대부분은 벌써 오래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지금까지도 짓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해마다 독촉을 하지만 이핑게 저핑게 하면서 도서관건설을 질질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계획위원회의 책임은 아닙니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해마다 계획에 넣고있으나 평양시에서 건설이 바쁘다는 구실로 도서관만은 매년 빼놓았습니다. 이 한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경제일꾼들이 과학연구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매우 적게 돌리고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재정기관들에서는 또한 과학일꾼들에게 다른 나라 책들을 사다주는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있습니다. 기술서적에는 자본주의가 물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수정주의가 물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도서를 꺼려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필요한 지식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조건들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일꾼들은 연구사업에 정력을 넣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김일성 저작집 17. 185-6 (1963.1 - 1963.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이 내용은 김일성의 도서관에 대한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중요하다. 과학연구사업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도서관을 지어주고 장서를 확보해서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책자이든 수정주의 책자이든 과학연구를 위해 필요한 외국의 서적은 모두 구입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평양시에서 핑계를 대어 건설의 우선 순위에서 도서관을 제외하였고, 재정기관들이 외국의 과학서적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적극적으로 구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김일성이 도서관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국가 원수 못지 않게 높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1950년대 소위 매카시즘(McCarthyism)에 의해 반공주의를 앞세워 장서 구성에 제한이 있었던 역사를 상기해 볼 때, 과학서적을 두고

한 말이지만 자본주의 서적이든 수정주의 서적이든 다 괜찮다는 말은 김일성이 도서관을 통치차원에서 편협하게만 운영하지 않았다는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⁸⁾

다음은 당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바로 잡으라는 담화의 한 내용이다.

전후에 평양시 건설을 계획할 때에도 일부 사람들이 중앙기관과 시급기관은 도시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그릇된 생각이라고 비판해주었습니다. 도시북판에는 로동궁전이라든지, 인민회관이라든지, 도서관과 같은 대중문화시설들을 지어야 합니다.

(김일성 저작집 17. 416 (1963.1 - 1963.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그는 이 담화에서 놀랍게도 도서관을 중요한 대중문화시설로서 도시 북판에 자리잡게 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이용자에 대한 배려인지 인민에 대한 유일사상 학습체계의 효율성을 생각한 것인지는 몰라도 도서관이 많이 이용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문화 유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실제 1982년 설립된 북한의 인민학습당은 평양의 중심에 있으며 그 앞으로는 평양 최대의 김일성 광장이 자리잡고 있음을 볼 때, 그의 이러한 생각은 국가사업으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도서관에 대한 집요함은 다음의 문헌에도 잘 나타나 있다.

1966년 기계기술자 양성사업을 개선을 위하여 기계공학 부문의 연구기관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담화 내용이다.

우리가 정전후에 다른 나라에서 과학도서관을 일식으로 사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나라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도서관이 꼭 필요하였는데 거기에 어떤 책들이 있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만권짜리 과학도서관을 하나 일식으로 사오도록 하였습니다. 기계공학연구소를 꾸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20. 569 (1965.11 - 1966.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18) 이에 대해 탈북인사는 과학서적이 국한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 북한에서 다른 분야의 외국서적에 대한 배척과 통제는 극심해서 이루 말할 지경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현상은 소위 북한의 주체사상의 발전과정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한국전쟁이후에 계속된 중·소분쟁 및 조·소분쟁, 중국과의 마찰을 겪고 난 196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소련에 대한 불신과 중국의 대국주의를 경계하며 대외적으로 자주국방과 경제적 독립을 표방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을 만들어 냈으며, 이를 통해 “주체의 유일사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상적 통제가 점차 극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 1965년 김일성은 이 주체사상을 세계에 공표하며 인도네시아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기도 하였고(서대숙2000:127-140), 이를 계기로 제3세계와는 친분이 강화되었지만 북한이 경제한 대국주의의 영향으로 선진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택하고만 계기가 되었다.

다른 나라의 도서관 자체를 어떻게 사왔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100만권의 장서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1960년대에 100만권 장서의 도서관을 마련하였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역사가 아닐 수 없다.

1970년대 문헌들 속에서도 김일성의 독서에 대한 강조와 도서관 사업추진에 대한 열의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사로청(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학생들의 사상문화교양사업 강화를 위해 청년 학생들의 독서량을 늘려야 한다는 담화 내용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청년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하여야 합니다.

책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주며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혁명적인 책은 청년들의 혁명의욕을 북돋아주는 데서 커다란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를 놓고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학시절에 맑스-레닌주의서적들과 함께 고리끼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압록강가에서》, 《소년방랑자》, 《아큐정전》, 《축복》, 《철의 흐름》과 같은 혁명적 소설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당시 사회의 부패상을 더 잘 깨닫게 되었으며 혁명투쟁에 나서려는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청년학생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청년학생들이 책을 잘 읽으려 하지 않는 것은 좋은 책이 많이 나오지 못하는 것과도 일정하게 관련되겠지만 주요하게는 청년학생들이 책을 읽기 좋아하는 버릇을 불이지 못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중략.....

사로청조직들은 학교와 로동자구 그리고 시, 군 소재지들에 도서실이나 청년도서관 같은 것을 잘 꾸리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서실이나 도서관 같은 것을 자그마하게 꾸리는 것은 그리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신문, 잡지들을 갖추어놓고 정치서적과 문예서적, 과학기술서적들을 가져다놓으면 될 것입니다.

(김일성 저작집 26. 38-9 (1971.1 - 1971.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이 내용 또한 청년 학생들에게 독서의 중요성과 독서 습관의 필요성, 그리고 도서관 운영의 문제를 담고 있다. 앞서 여러 번 언급한 것과 같이 학교, 로동자구, 시, 군 소재지 등 작은 지역에도 도서관을 많이 세울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문헌에서 김일성은 책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주며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로 소개하였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책을 혁명의 도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책 자체에 대한 진정한 가치도 알고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도서관도 혁명적 수단으로만 이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1972년 새로 배치된 사로청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도사로청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

설로서 청소년의 생활지도에 관한 것으로 과거 어렵게 책을 빌려 보면서 도서관을 꾸려 나갔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김일성저작집에는 특히 길림 시절의 향수가 많이 반복된다. 그만큼 김일성 자신이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철학을 그 곳에서 빌려오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먹을 권리를 가지고 모든 어린이들이 탁아소와 유치원을 거쳐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 들어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공부하고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중학교에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돈이 없어서 책을 살 수 없었지만 어떻게 해서라고 책을 보군 하였습니니다. 그때 내가 살던 도시에 큰 책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좋은 책이 오면 부자집 아이들 보고 그 책을 사라고 하여 그것을 빌려보았습니다. 부자집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으면서도 멋을 부리느라고 책을 사서 책장에 꽂아두군하였습니다. 내가 다니던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체로 도서관을 차려놓고 룬번으로 운영하였는데 내 차례가 오면 1년 동안에 쓸 학교도서관비의 50~70%에 해당하는 돈으로 좋은 책들을 사다가 학교에 비치해놓고 보았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27. 546-7 (1972.1 - 1972.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김일성은 또한 각 분야의 지식층과 기술자들이 도서관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데 대한 질책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당의 수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제하의 담화의 일부이다.

지금 우리 농업과학기술자들이 다른 나라의 기술서적들을 잘 보지 않다보니 세계농업과학발전추세를 모르고있으며 낡은 틀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습니다.

수산부문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앞바다에 정어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정어리잡이에 대한 과학기술을 모르다보니 그것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옛날에 쪽배를 타고 정어리를 잡던 로인들만 찾아다니지 도서관에 가서 다른 나라의 책들을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31. 453 (1976.1 - 1976.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농업과학기술자, 수산부문과학자·기술자들이 모두 도서관에 가서 다른 나라의 책을 열심히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계의 과학발전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낡은 틀에 안주한다는 질책이다. 왜 선배들의 경험만 답습하고 의존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앞선 기술들을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새로운 과학기술과 선진 문명의 도입도 도서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의 사상의 일단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지적은 또 있다. 이번엔 농업부문 과학자들에게 한 말이다.

나는 정전직후에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웠지만 다른 나라에서 100만권에 달하는 책을 사다가 큰 도서관을 꾸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서관에는 학생들이나 다니지 학자들은 잘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부문 과학자들이 공부를 잘하지 않다보니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잘 모르며 우리 나라 농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똑똑한 의견도 내지 못하고있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33. 136 (1978.1 - 1978.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다음은 1980년대 들어서 교육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외국어 교육 강화에 대한 연설이다.

지금 인민대학습당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공되면 거기에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서적을 몇 백만권 사다넣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나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웠던 정전직후에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 100만권에 달하는 과학기술서적을 사다가 도서관에 넣었습니다. 그 과학기술서적들이 이제는 낡았지만 그때에는 우리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중앙도서관에는 해방될 때 일제놈들에게서 빼앗은 일본책들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본말을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 책들을 보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늙었습니다.

앞으로 인민대학습당에 다른 나라 과학기술서적을 몇 백만권 가져다놓겠는데 그것을 다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들에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한가지 이상씩 소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저작집 35. 112 (1980.1 - 1980.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여기에서도 김일성은 새로 커다란 도서관을 지어 외국의 수백만권의 과학기술 서적을 구입해 놓겠다는 것과 그 외국 서적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기록에서 처음으로 인민대학습당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는데 이 인민대학습당은 “건축면적 2만 3천여평방미터, 연건축 면적 10여만평방 미터이고 높이 63미터, 너비 150여미터, 길이 190여미터로서 북한에서 가장 큰 10층의 조선식 건물로 알려져 있다. 건물은 10개의 호동으로 구분되는데 크고 작은 조선식 지붕은 34개이고 방 수는 모두 600여칸”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3천만부의 장서능력을 가진 서고를 중심으로

6000여석의 좌석을 가진 열람실, 강의실, 통보실, 문답실, 음악감상실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강의실들과 통보실 등에는 녹음기, 녹화기, 텔레비존수상기, 영사기, 환등기 등 현대적인 교육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북한의 국가도서관이다. 이 내용에서도 북한이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외국어 교육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들이 바로 이 인민학습당에 갖추어져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이 인민학습당의 도서관일군과 교원 들 속에서도 외국어 교원이 가장 인기가 있고 대우가 좋다고 전한다.¹⁹⁾

80년 이후에 도서관에 관한 언급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이후로는 이미 연로했고 대부분의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김정일에게 권력승계과정에서 이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그간의 2차 자료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북한의 1차 자료(first sources)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의 전후관계를 당시의 사회적 구조와 내용과 함께 통시적으로 분석(diachronic analysis)하고자 한 것으로서 해방 이후에 북한 도서관의 성립과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역사와 그 사상적 배경을 찾고자 설계되었다. 다만 아직까지 김일성 연구에 대한 담론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였고, 김일성의 생애와 그의 정책적 방향을 가늠하는 사상적 형성배경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음으로 해서 일부 주관성이 개입할 소지가 있었다.²⁰⁾

지금까지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1948년 북조선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정강정책 20개항의 발표에서 도서관사

19) 북한에는 세계적 규모의 대형 도서관인 인민학습당을 비롯하여 파리개선문보다 11m가 더 높은 평양개선문(60m), 주체사상탑(170m), 만수산 언덕의 김일성 동상(20m), 류경호텔 105층(300m) 등 세계적으로 기념비적인 건물과 조형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김정일으로써 권력 승계과정에서 김일성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써 자신의 통 큰 스케일과 담대성을 나타냈지만 이러한 비생산적인 건물 축조로 인해 북한 경제는 더더욱 힘들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연합뉴스2000, 81-84).

20) 김일성 저작집은 최초 김일성선집 제1판(1953-4, 전4권 134편), 김일성선집 제2판(1960-64, 전6권124편) → 김일성저작선집(1967-87, 전9권 202편) → 김일성저작집(1972-, 50권 1,500여편 : 실제 김일성의 담화나 연설문은 44권까지 기록되어 있고, 45권부터는 김일성의 회고록으로 채워져 있음) → 김일성선집(1992-, 33권-)으로 체계화되었는데, 네 차례이상 개작과정이 있었으며(김병로,1993), 특히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문화예술과를 맡았던 1969년 이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김일성의 유일 지도형태를 체계화하기 위해 김일성의 모든 저작들을 편집 재 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대숙,186). 이 김일성저작의 수정내용은 김병로(1993)와 전미영(2001)의 연구에 잘 나타나는데 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이 수정된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업 확장을 명시하였으며 1953년의 국가경제계획에도 국립도서관의 복구와 확장 및 도 소재지와 주요 도시에 도서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정도로 도서관의 복구와 건설에 열심이었다. 여기에는 전쟁시기의 투쟁업적을 자료로서 보존하여 홍보하려는 목적이 강했다. 북한은 평양에 국립중앙도서관 복구 및 확장 사업을 1963년에 끝마쳤으며 도, 시, 군립, 구역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형태의 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 학교도서관, 그리고 공장 및 기업소 도서관 등 전문도서관을 망라하여 국가도서관망을 조직하였다(아래 표1). 이후 연이은 국가경제계획에도 북한도서관 건설사업은 계속 포함되어 전국적으로 15,000여개에 이를 만큼 도서관은 양적으로 발전하여 왔다(통일원, 1996)²¹⁾

각종 도서관의 장서구성은 당문헌, 사회과학서적, 자연과학서적 등이 망라되어 있으나 다른 나라의 과학서적을 많이 입수할 것을 특히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해방전 출판서적과 민족고전 등의 자료들도 김일성의 항일투쟁경력과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대상이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권장도서목록을 작성하는 등 학교도서관을 지도·감독하였으며 국가 정책적으로 청소년들의 독서장려와 감상문 제출을 촉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1982년에 북한이 세계적인 도서관으로 자랑하고 있는 인민대학습당이 완성됨에 따라 국가도서관의 역할을 떠맡았으며 강의 수행 등 도서관 이상의 직접적인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북한 도서관의 이러한 발전과정과 양적 성장에 대한 비평에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북한의 도서관이 사회적 문화교양기관을 자처하고 있지만, 그 근본 목적과 기능은 당의 유일사상체제와 혁명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탈북 인사의 주장처럼 일제 강점 시기나 한국전쟁을 겪는 혼란의 시기를 버텨온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거의 배우지 못해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북한사회를 건설하고 그들의 지도자로서 김일성의 존재를 확고히 하고 경제기반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깨우쳐야 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교육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필요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 출판사업과 교육사업으로 문맹퇴치운동 등이 줄기차게 벌어지고 그 수단으로 도서관사업이 활성화되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현실은 도서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북한의 문화활동 형태의 하나로 실제 북한은 김일성 유일체제를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군중문화활동에 큰 비중을 두어 왔는데 조선로동당은 이른바 <군중문화활동에 따른 黨利>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 시설의 활용을 고무하여 온 것이다.

21)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2차회의 총회 리근모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1987-1993) 계획에 대하여”(1987.4.21)와 당 중앙위 제6기제21차 전원회의, “제3차 7개년(1987-1993) 계획수행 정형과 당면한 경제건설 방향(1993.12.8)”의 내용에서 발췌한 것으로 도서관의 질적 문제를 떠나서 북한은 199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15,000개의 도서관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북한의 도서관체계

| 도서관유형별 /소속별 | | 국가공공도서관망 | 기관, 기업소도서관망 | 사회협동단체도서관망 |
|-------------|---------------|------------------------------|--|--|
| 군 중 도서관 | 성인 도서관 | 시, 구역 도서관 군도서관 신문잡지열람실 | 당,정권기관,근로단체도서관 공장도서관 광산도서관 수산,림업,건설,운수,문화, 보건부문 기관 기업도서관 | 농촌도서관 생산협동조합도서관 수산협동조합도서관 편의협동조합도서관 |
| | 학생 도서관 | 시,군,구역 학생도서관 | 인민학교도서관 고등중학교도서관 학생소년궁전도서관 | |
| 과 학 도서관 | 종합적인 과학도서관 | 국가도서관 도도서관 |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국가과학원도서관 사회과학원도서관 | |
| | 전문 과학 도서관 | | 대학도서관 연구기관도서관 | |

(조선대백과사전, 1998)

그 대표적 시설로써 군중문화회관, 구락부, 민주선전실, 도서관, 박물관, 기념관, 혁명전적지, 전람관, 극장 영화관, 전람회 등을 행정구역 및 작업반 단위로 두어 당 정책을 선전하는데 이용하여 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서관의 외형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체제구조상 북한의 도서관을 우리 나라의 도서관과 같은 의미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순수한 도서관의 기능도 아울러 수행하여 왔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²²⁾

다음, 이 번 연구의 핵심 주제로서 김일성 즉, 김일성의 퍼스널리티가 북한의 도서관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기 위하여 그의 도서관에 대한 사상적 측면을 조사하였다.

김일성은 아버지 김형직을 회고하면서 새것에 민감하고 향학열이 높았던 분으로 학창시절(송실중학교)에 어렵게 고학을 하면서도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며 밤잠 없이 독서에 열중하였던 것으로 기억하였다. 또한 김형직은 김일성에게 독서습관을 붙여주었고 읽은 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상문을 쓰게 함으로써 책의 핵심 내용에 쉽게 접근하고 독서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의 아버지의 영향은 그가 중국 길림에서 육문중

22) 실제 북한학생, 일반인들의 도서관 이용목적에 대한 탈북인사의 언급에 따르면, 순수하게는 학습, 연구, 문제해결, 자기발전, 재미로도 이용하지만 강제적으로 당의 방침에 따라 혁명서적을 읽으며, 간부예정자들은 혁명역사와 주체사상학습을 보다 많이 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한다. 특이한 사실은 일반노동자들도 조직생활의 고달픔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소설책의 여행 속에 빠지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으며, 연애소설이나 외국소설 등 순수한 자연과 인간생활을 그린 작품들이 인기가 있다고 전한다.

학교 시절을 보내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새것을 좋아하고 탐구열이 강하여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놓지 않았던 아버지의 영향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그 당시에 좌파 선진사상이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 서적을 탐독하게 하였고 이를 위해 그 역시 밤이 새도록 도서관을 떠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매달 열람권을 끊어 매일 몇 시간씩 도서관에서 책과 신문을 보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학교 총학생회에서 선출하는 도서주임으로 두 번이나 선출되어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세우고 장서구입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는 학교밖에 비밀독서회를 조직하여 도서실을 꾸려본 경험이 있고 도서구입과 경비마련을 위해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하였다. 또한 도서관뿐만 아니라 책방을 자주 드나들며 다양한 책들을 접하였고 이를 다른 동료들의 의식화작업에 이용하였다. 그는 그 당시에 혁명화 작업을 위한 것이었겠지만 학생들을 도서실로 유인하기 위하여 도서안내를 시내 곳곳에 부치고 연애소설을 구비하는 등 도서관 운영의 틀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책과 도서관을 가까이 했던 김일성은 젊은 시절 선진 사상으로 받아들인 마르크스 사상으로 무장하여 훗날 항일투쟁의 업적을 남기고 북조선을 건설하게 된다. 그는 그 북조선에서 일제시대라는 민족적 고난 속에서 문맹의 한을 공감했고,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경험과 길림시절에 어렵게 취득했던 독서와 도서관문화를 장성한 훗날 무의식 또는 의식적으로 재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의식적으로 재현했다는 것은 그가 도서관뿐만 아니라 혁명박물관, 영화관 등 군중들의 문화활동을 조직화하려는 노력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그리하여 1946년 임시정부 정강정책 발표에서 도서관 수효 확대를 공약한 이후에도 수십 차례 도서관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독서지도를 강조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훌륭한 연구 성과와 과학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있어야 하고 선진 외국의 장서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상에 관계없이 외국의 과학기술서적을 적극적으로 수입할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는 도서관을 중요한 대중문화시설로서 도시 한복판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으며 실제 그렇게 하였다. 그는 몇 차례의 도서관에 대한 직접적인 담화에서 모든 관중의 도서관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그 운영과 관리 방안에 관한 세부 지침까지도 내린 바 있다. 또한 학생들과 청년들, 각 분야 과학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여 선진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공부하려 하며 선배들의 경험만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고 여러 번 질책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그가 도서관에 대해 가졌던 사상적 측면만 보면 다음과 같다.

- 1) 그는 젊어서는 비밀독서회를 조직하고 북한의 지도자로서는 인민의 사상적 의식화 작업을 수행하는데 도서관을 이용하였지만, 도서관을 새로운 과학기술과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도구로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양면적이지만 김일성 유일체계의 확립과

경제 재건 등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도서관 건설의 우선 순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

- 2) 그는 독서와 도서관을 혁명의 수단으로 이용하였지만 독서와 도서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체득하고 있었다. 많은 도서관을 세운다는 측면에는 김일성체제의 확립 등 불가피한 교육 목적의 전달이라는 입장이 있었지만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문맹을 떨쳐내고 지식과 교양을 습득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활용성을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도서 복판에 도서관을 세우겠다는 생각은 인민 중심의 도서관의 편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경제적 문제에 따른 것이겠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도서관의 겉대기보다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모든 분야 발전의 기본 조건으로 충분한 장서가 갖추어지고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균형 장서의 면모를 알고 있었으나 사상적 통제를 가하다보니 과학기술서적 중심의 장서구성을 강조하였고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에 대한 기대로 특히 외국자료의 입수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6.25 남침이라는 민족사의 깊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준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분단된 국가의 반쪽을 전체적으로 통치하며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자유 없이 사는 고난과 아픔에다 배고픔까지 유산으로 남겨 준 그에게 어떠한 존경과 연민이 있겠는가. 여기에서의 기술은 단지 역사적 사료로서 도서관관련 부분 언행에 대해서만 그를 평가한 것이다.²³⁾ 따라서 여기

23) 김일성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1990년대 이전에 나왔던 수많은 김일성 평전들은 냉전적 사고와 부정적 시각의 틀을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환경에서 쓰여진 것으로 고투의 흔적이 엿보이는 많은 빛나는 저술들이 있었으나 이것을 객관적 자료로 모두 인정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최장집은 “경직된 냉전논리와 수정주의적 이론이 가지는 문제점 등을 극복하려는 제3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고, “전쟁을 체험한 기성세대들은 그것을 체험했다는 사실 때문에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많은 저서에서 그럴듯한 증거와 관련문헌을 연결시켜 김일성을 방화와 강간, 살인을 일삼은 마적떼의 미치광이 정도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살아남기 위한 콤플렉스와 탈도덕적 대담성이라는 정신분석적 처방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또한 그의 아버지도 무학의 아편장수로 둔갑시키고 그의 조상의 전력까지도 문제삼고 있다. 문제는 북한 쪽에도 많이 있다. 실제 김일성이 행한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가치와 의의가 있는 일들을 소위 혁명신화로 격상시키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날조와 많은 왜곡이 가해진 것이다. 이제 그는 민족의 죄인으로 실패한 지도자로서 저 세상에 갔지만 그렇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는 진실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도 다양한 평전과 북한 쪽의 기록을 통해 그 진위를 종잡을 수 없는 것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생전 집필가의 활동영역과 사상적 배경, 그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평가와 정설로 확립된 기록에 의해 어느 정도 정확한 사실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김일성은 어머니 강반석과 장로인 외할아버지 강동옥에 의해 기독교적 영향 아래 유년시절을 보냈고, 소학교 이후 아버지 김형직에 의해 민족주의적 의식을 물려받았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길림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많은 공산주의적 가르침을 받게 되고 사상적 변화를 맞게 된다. 그는 이후 마르크스-레닌 이념에 천착하고, 스탈린의 공산주의 철학 등을 철저하게 받아들였다. 한국전쟁 이후 소련에 대한 배신감과 중국의 대국주의를 경계하여 독자노선을 걷기 위해 주체사상을 만들어 내었다. 그는 많은 치적 못지 않게 엄청난 과오를 남겼지만, 개인사적인 면에서 볼 때, 그는 14세에 아버지를 20세에 어머니를 여윈 상태에서 3남매의 장남으로서 한 세대를 이겨내야 했던 불행한 인간이었다. 따라서 20여년간 만주벌판에서 항일투쟁을 하며 살아남은 생명력과 빨치산 투쟁을 빚대어 싸움만 잘하는 잔인무도

원문에 기술된 모든 기록들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 지금까지의 분석도 완전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2차적인 검증작업을 통해 김일성과 그의 지지자들에 의해 왜곡된 사실도 많이 드러났고, 역사적 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들을 통해 역사적 사실은 밝혀 내고, 잘못된 부분은 계속하여 수정함으로써 북한과 북한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高哲義.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圖書館事情”, 《圖書館雜誌》 81.8(1986), pp. 455-556.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백과전서(2)』.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김갑철·고성준.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 서울 : 문우사, 1988. p. 250.
- 김미현. “도서관 협력 및 전자도서관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활성화 방안”, 《98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논문집》. 4(1998), pp. 267-318.
- 김병로. 『김일성저작해제』.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175.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1권-47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1997.
-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회고록)1』.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361.
- 김준엽·김창순 공저.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서울 : 창계연구소, 1986.
- 남태우. “북한의 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1(2000), pp. 71-92.
- 내외통신 7877호('92. 6. 8)
-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4)』.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96.
-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6)』.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98.
- 백상창. 『김일성의 정신분석 : 퍼스널리티와 정치행태의 분석』. 서울 : 등대출판사, 1980. p. 293.
-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 서울 : 북한연구소, 1994.

한 인간으로 그를 매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적기에 활용할 줄 알았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주변 정세를 잘 이용하여 소련에 지지와 신임을 얻어내고, 30대 초반에 북한에 지도자로서 등장하여 극심한 권력투쟁과정을 이겨낸 대단한 존재이기도 하였다. 그는 또한 주변 강국인 소련과 중국과도 그 역할 관계를 잘 이용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왔고, 독자노선을 걷기 위해 주체사상을 창시하는 등 반세기에 걸쳐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한 자로서 그의 지적 능력도 결코 다른 지도자에 비해 떨어진다고 단언 할 수는 없을 것이다.